

# 군비행장 소음기준 완화 반발 확산

## 광주시의회 법안반대 긴급 건의안 채택 대책위, 이전 촉구 30만 서명운동 돌입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지원 기준 축소 법안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공동대표 국강현·임형철)는 공군 전투비행장의 소음 피해 대책마련과 함께 군 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광주시의회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긴급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한나라당·민주당·국방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이하 대책위)는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군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즉각 이전하라"며 "군 공항이전을 촉구하는 광주시민 3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공군본부가 지난 2008년 국방연구원에 '광주 군 공항 종합발전방안' 용역을 의뢰한 결과 무안공항이 최적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국방부는 결과해지의 정신으로 전투비행장 이전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가 용역결과를 근거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안지역으로 광주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로 합의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한 만큼 강운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승적 합의를 통해 광주 전투비행장 이전을 국방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어 "광주시는 전투비행장 이전에 따른 군 공항부지 180만평 활용계획과 비행구역지정 해지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을, 전남도는 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남해안권 발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광주 서구와 광산구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청각장애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 시장과 박 지사가 광주 군 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즉시 합의하도록 30만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도 국방부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8일 열리는 제195회 행정위원회에서 국방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

책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긴급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방부 법안은 소음피해 기준을 85웨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현재 75웨를 넘는 소음 발생시 소음피해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간항공기 규제법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며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75웨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 건의문을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방부,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



광주전투비행장 이전 추진대책위원회가 7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열고 전투기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광주 군비행장을 조기 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화순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 잇따라 지자체 공무원 공짜해외여행 감사 요구

전완준 전 군수의 낙마로 오는 4월 27일 치러질 화순군수 재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예비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있다.

7일 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배동기(55·전 화순부군수) 씨가 이날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앞서 등록 개시 첫 날인 지난 4일에는 민주당 배남수(48·수의사)씨와 무소속 민병홍(51·전 전남도교육위원회 부의장)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밖에도 김형래(54·동북농협장), 구충곤(51·전남도립대 총장), 임호환(66·전 농어촌공사 전남본부장), 홍익식(53·전남도의원)씨 등이 거론

되고 있다.

또 오는 16일과 23일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호경, 전형준(전완준 군수 친형) 전 군수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어 이후 이들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다. 화순군 재선거 후보자 등록은 4월12일~13일이며, 14일부터 선거일 전인 26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수 있다. 선거일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화순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형제군수' '부부군수' 등의 집안싸움과 '역대 군수 3명 사법처리' 등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행정안전위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짜 해외여행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안건을 행안위위원장 "감사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법인 카드사의 지방공무원 국외여비 지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정수성(무소속)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공짜 해외여행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에게 경종을 울려 청렴의식을

재무장시키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에 공짜 해외여행의 문제점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는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회신했고, 감사원은 '뇌물과 등을 위반한 것으로, 형법상 처벌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안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형뉴스

# 광주, 전국 제일 투자지역 급부상

## 민선 5기 83개 기업 투자의향·5700명 고용 기대

민선 5기 들어 국내·외에서 80여개 기업이 광주에 투자자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등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 5기가 시작된 지난해 중반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 83개 업체가 투자의향을 밝혀왔으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5700여 명이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7일 밝혔다.

강운대 광주시장은 지난달 일본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 투자 및 연구협력과 관련 모두 22건의 협약을 체결하고 총 2억245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1월 R&D(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동북아 연구 협력 삼각 벨트 구축'을 위한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광주를 세계적

인 사이언스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최근 광산구 평동2차 일반산업단지 내 13만 2000㎡(4만평)를 지식경제부로부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확대 지정받았다. 이는 지난 1994년 10월 지정된 평동1차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장용지 95만9000㎡(29만평)가 입주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광주시는 확대 지정된 지역에 국비 295억9100만원과 시비 98억6400만원을 투입해 집중 개발할 방침이다. 이곳에는 광화레이저분야 핵심기술 보유기업인 미국 RMI사, 태양광 모듈생산업체인 중국의 토플레이 솔라사, 미국 금형업체인 필로스테크사 등 우수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광주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강 시장은 지난해 10월 말에도 일본과 미국을 잇달아 방문, 금형산업과 문화산업 분야에서 모두 1억94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투자유치가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저렴한 산업용지와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우수하고 풍부한 연구인력, 안정된 노사문화와 기업친화적 환경,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 등을 갖춘 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강 시장은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하면서 광주가 엄청난 잠재적 능력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예술적 개와 마인드 등 광주가 지닌 장점을 활용해 첨단과학산업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정기자 redplane@

# 광주 남구 새청사 증별 활용방안 확정

## 1층과 5~9층 청사, 2~4층은 임대·내년 9월 입주

광주시 남구가 신청사 증별 활용방안을 확정했다.

남구는 7일 "9층 규모의 백운광장 신청사 건물 중 1층 일부와 지상 5~9층을 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최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지상 1층 일부에는 민원창구가 설치되며, 지상 5~9층은 사무실 등 구청 청사로 이용된다. 또 지상

1층 나머지 공간과 지상 2층~4층은 민간에 임대하게 된다.

지상 1층과 5~9층을 구청 청사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청사 공간과 임대시설을 분리할 수 있고, 주민 이용의 편리성과 관리 용이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남구는 밝혔다.

앞서 남구는 지난 1월 증별 활용 방안 및 수익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해왔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에서 실시한 용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 1층과 5~9층을 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확정된 청사 활용방안을 오는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9월까지 신청사에 입주할 방침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북구 풍향동 구간경계조정 주민설명회

광주시 북구는 7일 북구 풍향동 풍향제일 새마을금고 4층에서 풍향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 설명회에는 강운대 광주시장을 비롯한 송광동 북구청장·유태명 동구청장 등 지역주민 100명이 참석했다.

주민 설명회는 추진배경·경과·기본방향·일정 등에 대한 구간경계조

정안 설명에 이어 내민 인사·주민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도심 공동화현상과 구간 주민 수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권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국회의원 정수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간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된 만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바란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풍향동 주민들은 구간경계조정과 관련, 적극 공감하면서도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주민들은 풍향동 재개발문제와 문화 편의시설 설치, 풍향동 전 주민 동구로 이전, 도심 공동화 해소방안 등 마을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구했다.

한편, 구간경계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북구 풍향동 주민 2425명은 동구 계림동으로 편입되며, 동구 산수동 주민 635명은 북구 풍향동으로 조정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할터전국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아이엘리시아**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平日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 - 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